

국민모두가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일, 통일우유보내기



임종석
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
열린우리당 국회의원

개성 선죽교 앞을 지나다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다.

‘몇 살이야?’

‘일곱살’

그 때 함께 가던 엄마가 아이를 나무랬다.

‘일곱살이에요~ 해야지!’

남과 북, 엄마들의 모습도 아이들의 모습도 똑같았다.

얼마 전, 북한과 민간교류 차원에서 실무회담을 위해 개성을 다녀 온 후배에게 들은 얘기다. 초롱한 눈망울의 작은 아이의 모습도,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엄마의 모습도 우리네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단다.

그렇게 같은 모습,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남북의 어린이들. 하지만 분단이 가져다 준 상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았다. 몇 번 기회가 닿아 북녘 땅을 밟을 때마다 우리나라 60~70년대를 보는 듯한 북한의 발전 속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다. 이런저런 기회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, 특히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눈여겨 본 사람들은 가슴 아팠던 경험담을 털어놓곤 한다. 북녘 아이들의 표정은 밝

고 씩씩하지만 몸이 너무 왜소해 보인다는 안타까움이다.

이미 북한과 남한의 어린 아이들은 키와 몸무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 더 큰 문제는 어린 시절 영양상태의 부

실로 인해 왜소해진 신체는 유전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.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남의 일이라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.

통일은 멀리 있지 않다.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통일이다. 정치적 차이, 경제적 차이 그리고 군사적 차이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, 변해버린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. 오히려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“통일우유보내기 운동” 처럼 작은 정성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는 크고 뜻 깊은 실천일 것이다.

남북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도전의 현장이다. 북한은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이다.

오늘 나의 작은 정성이 민족의 내일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실천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.

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우유를 권하는 마음으로, 선죽교 앞 그 개성 어린이의 손

오늘 나의 작은 정성이 민족의 내일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실천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.

에도 우유 한잔을 쥐여주시길...

북한 어린이에게 '사랑의 우유를'



정 병 국

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
한나라당 국회의원

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선 자기 몸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.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결코 그릇된 말은 아니라는 게 나의 지론이다. 때문에 연중 의정활동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'매일 아침 우유 마시기' 만큼은 늘 빠뜨리지 않고 챙겨왔다. '우유 마시기'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, 보다 활력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, 더 나아가 국가에너지 제고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다.

지난 6월 1일은 '우유의 날' 이었다.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가 2001년 처음 6월 1일을 '세계 우유의 날'로 정한 이래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매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.

더구나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농협중앙회, 낙농진흥회, 한국유가공협회 등 낙농 관련 단체들이 북한 어린이에게 장기적으로 우유를 지원하기 위한 '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'을 선포하여 몽글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.

1995년 이후 지속된 대북식량지원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림과 영양실조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 세계 수준에 비하면 북한 어린이의 신체상태는 열악하기만 하다. 세계식량계획(WFP)과 유엔아동기금(UNICEF)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 중 체중미달 어린이의 비율은 23%에 이르고 특히 임산부의 3분의 1 가량이 영양결핍이나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. 또한 우리 남한 어린이에 비해 북한 어린이들은 신장이 평균 27cm 작고, 체중은 10kg 적다고 한다.